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2009년 상반기 글로벌 자연재해 보험금 크게 상승

- Munich Re는 2009년 상반기 중 글로벌 자연재해와 기상 악화로 전 세계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110억 달러에 달하며, 이는 과거 10년간 평균치를 상회한다고 밝힘.
 - 2009년 상반기 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110억 달러로서 지난 10년간 상반기 평균 보험금인 100억 달러보다 10억 달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금년 상반기의 자연재해는 대부분 보험으로 담보됨으로써 이들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.
 - 반면,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손실은 크게 감소하였고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침으로써 자연재해 총 손실은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.

글로벌 자연재해	2009년 상반기	1999-2008년 상반기 평균
발생 건수	380 건	400 건
총 경제적 손실	250억 달러	420억 달러
지급보험금	110억 달러	100억 달러
사망자	3,000명	24,000명

- 총 경제적 손실로 볼 때 가장 규모가 컸던 자연재해는 금년 1월말 북부 스페인과 남부 프랑스를 강타한 겨울 폭설이었으며, 4월초 중부 이탈리아를 급습한 지진피해는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남.

일자	지역	재해	사망자	총 경제적 손실	지급보험금
2009.1.23~25	유럽	겨울 폭설 Klaus	26	38억 달러	23억 달러
2009.4.6	이탈리아	지진	295	25억 달러	2억6천만 달러
2009.2.10~13	미국	토네이도	15	20억 달러	13억 5천만 달러
2009.4.9~11	미국	토네이도	9	15억 달러	9억9천만 달러
2009.2.7~28	호주	산불	173	13억 달러	7억7천만 달러

- 한편, Munich Re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카리브 해 및 북대서양 지역의 허리케인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 자연재해 손실은 상반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.
 - 더불어 기상변화로 인한 장기 가뭄과 이로 인한 화재발생 증대는 앞으로도 지속될 위험이라고 밝힘.

(Munich Re 2009년 상반기 자연재해 손실 보고서 보도자료, 7/27)